

광주·전남 임상병리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 및 취업에 대한 의식도 조사

서강정보대학 임상병리과

황 구 연 · 조 영 국

Investigation of the Clinical Pathology Department Student Satisfaction and Their Recognition of Employment in Gwangju-Jeonnam Province

Goo-Yeon Hwang and Young-Kuk Cho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eokang University, Gwangju 500-742, Korea.

This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the examination of current Gwangju and Jeonnam clinical pathology students' recognition of their departments and of effective employment guidance. Furthermore, it has examined the students' recognition on two sides; namely,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own departments and their recognition of the employment of medical technologists. This investigation, with 389 students as its subjects from the clinical pathology departments at 4 universities in the Gwangju-Jeonnam Region, has compared and analyzed the data from the survey with a questionnaire from November 2008 to June 2009 by using the SPSS 12.0 package. Some of the remarkable results from the yielded data are as follows. As for the motivation for their application to the clinical pathology departments, the investigation of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s has revealed that 47.5% of the subjects indicated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acquaintances while 22.1% reported that they had been informed of the departments through Internet. 70.4% of the subjects graduated from general high schools, 22.3% from commercial high schools, and 6.2% from technical high schools. Applicants from general high schools tend to decrease in number every year. 28.5% of the students judged professor's capability of lecture as an important part of their acquisition of licenses, and more than 65.6% of the subjects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their self-study at night for the acquisition of license. As for the future prospect of the occupation of clinical technologist, 46.8%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it was promising, while 39.1% reported that they had no ideas. From this we can confirm that the students of clinical pathology lacked a viewpoint of occupation and goals for future jobs. The investigation of the students' recognition of the employment of clinical technologists has revealed that 47.8% of them wanted to be employed in the Seoul-Gyeonggi Region due to the properties of their local universities, 29.0% of them expected their monthly salary to be 1,200,000~1,300,000 won, while 22.4% 1,300,000~1,400,000 won. These figures indicated that these students' salary expectations were relatively lower than those from cities and provinces. As for the greatest difficulty after employment, 31.1% of the subjects indicated the confliction among employees from various colleges, 27.3% uncertainty of duties related to those of major, 24.9% burdens of self-development.

Received 20 JAN 2010 / Returned for modification 5 MAR 2010 / Accepted 27 APR 2010

Key Words : Student satisfaction,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Gwangju-Jeonnam, SPSS 12.0 package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됨으로 인해 대학 졸업의 우수한 자원들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청년 실업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황, 1989). 특히 임상병리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은 외부적으로는 타 학과 전공자들에 비해 직업 전문성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고 채용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내부적으로는 취업에 대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정, 1996). 지금은 임상병리를 전공한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취업 영역을 개발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취업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Crom 등, 2000). 임상병리사의 어려운 취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방안은 임상병리사를 육성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노력에서부터 그 출발 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현 재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취업지도를 통해 학생 개인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병리과는 타 보건계열 학과에 비해 취업 경쟁력이 감소되고 있으며(지, 1996), 일부 지역(서울, 경기)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매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상병리사 직업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지원학생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신입생 지원이 학과 정원에도 못 미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재학생 역시 학기 중 중도탈락률 또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Sherson 등, 1988).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대학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직종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조사는 임상병리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취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면허취득과 미래 지향적인 직업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지와 정, 1998).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 및 학과에서도 재학생들에게 타 보건의료 직종에 비해 차별화된 직업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학생지도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임상병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개인별 맞춤형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접근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임상

병리사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본 조사의 근본 취지라 할 것이다. 향후 이번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학생지도나 취업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II. 대상 및 방법

1. 대상

조사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광주, 전남지역 4개 대학 임상병리과에 재학 중인 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참가한 학생의 학년별 분포는 1년 과정 학생이 110명 2년 과정 학생이 95명, 3년 과정 학생이 18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 방식은 각 대학 임상병리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학별로 일정 기간 조사 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임상병리과에 대한 만족도와 임상병리사 취업 및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정도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와 학생 입장에 바라본 임상병리사 취업에 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과 및 취업에 대한 의식수준의 변화를 찾고자 하였다.

2. 방법

문항 구성은 대상 학생 389명에게 동일한 항목을 조사 하였으며, 총 30개의 문항 중, 학과만족도 관련하여 9문항, 취업인식도 조사와 관련사항은 16문항, 임상병리과 전망과 관련된 사항은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의 양식은 공통문항 25문항, 개방형은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2.0 package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대상별 분포와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각 조사항목의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그룹간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본 조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 조사 대상선정이 특정지역으로 국한됨으로서 산출된 결과를 확대 해석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III. 결 과

1. 임상병리학과의 만족도 조사

1) 조사대상 학생의 특성

학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4개 대학 학생들의 특성으로 성별, 지원동기, 출신 고교, 면허취득에 가장 필요한 요소 및 야간 자율학습 필요성, 임상병리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상학생의 성별은 학과의 특성상 조사대상자 중 전체 389명 중 남학생이 112명으로 28.8%를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은 277명으로 71.2%를 차지하였다. 입학 시 임상병리과를 지원한 동기를 조사하여 지원학생들의 고교 졸업 후 임상병리학과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47.5%인 185명이 친구 및 지인들의 권유로 지원하였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22.1%, 고교 담임 선생님의 권유 및 대학 홍보자료를 통해서가 11.3%와 12.3%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고교 졸업 후 임상병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친구 및 지인들의 소개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원자를 추천하는 이유로는 임상병리사의 취업률과 사회적 위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문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전체 조사대상 학생 중 인문계 고교 출신이 70.4%, 상업 및 공업계 고교 출신이 22.3%와 6.2%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 학생의 특성

특 성	구 분	명(%)
성 별	남자	112(28.8)
	여자	277(71.2)
임상병리과 지원동기	대학 홍보 자료	48(12.3)
	인터넷	86(22.1)
	선생님 권유	44(11.3)
	친구 및 지인 소개	185(47.5)
	졸업 선배 추천	18(4.6)
	기타(독자 지원)	8(2.0)
출 신 고 교	인문계	274(70.4)
	상업계	87(22.3)
	공업계	24(6.2)
	기타(검정고시)	4(1.0)
합 계		389(100)

지금까지 임상병리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인문계 고교 출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로 인해 상업 및 공업계 계열 출신의 학생들의 임상병리과 지원이 매년 상대적으로 상승되고 있었다(이, 1889). 이러한 경향은 진학 후 학업 성취도와 관련하여 대학별로 학기 중 중도 탈락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면허취득 및 임상병리사의 전망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향후 학생 입장에서 임상병리사의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졸업 후 면허증 취득을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28.5%인 111명이 교수의 강의 능력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모의고사(26.0%)와 학교시설 및 실습(21.6%), 야간 자율학습(2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한 야간 자율학습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6%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율학습이라는 학습방식에 대해 학생 스스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가 생각하는 임상병리사 직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6.8%에 해당하는 182명 만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하고 8.7%는 전망이 어둡다고 답하였으며, 39.1%인 152명의 학생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표 2).

표 2. 면허취득과 임상병리사의 전망

특 성	구 분	명(%)
면허취득관련 요소	야간 자율 학습	80(20.6)
	교수강의 능력	111(28.5)
	학교시설 및 실습	84(21.6)
	외부 특강	9(2.3)
	모의고사	101(26.0)
	기타	4(1.0)
야간자율학습의 필요성	필요하다	234(60.2)
	필요없다	28(7.2)
	반드시 필요하다	21(5.4)
	필요에따라	102(26.2)
	기타	4(1.0)
향후 임상병리사 전망	밝다	182(46.8)
	어둡다	34(8.7)
	잘모르겠다	152(39.1)
	기타	21(5.4)
합 계		389(100)

표 3. 실습병원과 취업 의료기관의 관련성

실습병원 선택 시 취업의 관련성 유무					전체명(%)
있 다(%)	어느 정도 관련있다(%)	없 다(%)	전혀 관련없다(%)	기타(%)	
188(48.3)	137(35.2)	35(9.0)	26(6.7)	3(0.8)	389(100)

표 4. 임상병리사 희망 진출 분야

업무 분야중 희망 진출 분야는				전체명(%)
진단검사의학 분야(%)	임상생리 검사 분야(%)	조직병리과 검사 분야(%)	기타(%) (임상 관련 연구소, 건강검진)	
212(54.5)	28(7.2)	50(12.9)	99(25.4)	389(100)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임상관련 검사를 담당하는 단순한 임상병리사로서의 미래는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단순한 학과전공 공부에 만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를 통해 학과 및 협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진로분야 개척과 직업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학생 스스로도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2. 임상병리사 취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

1) 직장에 대한 인식정도

면허취득 후 임상병리사 직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병원과 취업 의료기관의 상관성, 취업 시 요구되는 항목, 취업 선호지역, 희망 급여 수준, 취업 후 직장생활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1) 실습병원과 취업과의 관련성

재학 중 실시하는 현장학습(병원실습)을 위한 학생들의 의료기관 선택 시 응답자의 48.3%와 35.2%인 325명이 취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어느 정도는 관련 될 것으로 생각하여 실습병원을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

현장학습 실시 전 학생 스스로 졸업 후 취업병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실습병원을 결정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학생 임상실습을 위한 의료기관 결정 시부터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임상병리사의 희망업무 진출분야

졸업 후 임상병리사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희망 진출 분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5%가 진단검사의학 분야를 선호하였으며, 임상관련 연구소, 건강검진 등이 25.4%, 조직병리분야가 12.9%, 생리기능 검사 분야가 7.2%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

최근 진단검사의학과 다음으로 학생들의 임상생리 검사분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취업 희망분야를 임상생리검사로 선택한 대상학생 중 그 선택이유를 조사한 묻는 질문에는 진단검사의학과의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경쟁률이 높지 않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선택 이유로 들었다.

(3) 취업 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취업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 받는 항목이라 생각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9%가 어학 실력을 들었으며, 학과성적이 37.8%로 조사되었다(표 5).

학생이 취업을 위한 자신의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학실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 응답자 중 출신대학이 8.0%, 외모를 중시한다는 의견이 1.8%로 조사되었다.

(4) 취업을 위한 지도 받고 싶은 분야

어려운 취업관문을 통과 하기위해 학과에서 희망하는 지도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7.0%가

표 5. 취업 시 중요한 평가항목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 되는 것은						전체명(%)
어학실력(%)	학과성적(%)	인성,성실(%)	외모(%)	출신대학(%)	기타(%)	
167(42.9)	147(37.8)	35(9.0)	7(1.8)	31(8.0)	2(0.5)	389(100)

표 6. 취업을 위한 희망 지도 분야

취업 지도 시 희망하는 분야는					전체명(%)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작성(%)	면접교육(%)	취업영역 교육(%)	인력채용정보(%)	기타(%)	
130(33.4)	144(37.0)	85(21.9)	27(6.9)	3(0.8)	389(100)

면접지도를 희망하였으며,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교육이 33.4%, 취업영역에 대한 사전교육이 21.9%, 의로기 관별 인력채용 정보 6.9%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6).

취업의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 면접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면접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을 위한 별도 강의 과목을 편성하여(허, 1986) 다각도로 취업영역의 확대와 같은 학과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취업 및 직장 생활의 인식 정도

취업 선호지역 및 취업 시 본인 희망급여 수준,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 예상하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취업 선호지역으로는 지역 특수성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학생의 경우 47.8%에 해당하는 186명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였다. 취업시 본인이 희망하는 첫 달 희망급여 수준은 120~130만원 범위가 전체응답자 29.0%인 113명으로 조사되었다(표 7).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지역에 현 임금 수준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임상병리과 인가 대학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추측된다.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차별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관련 업무에 대한 불안감도 27.3%로 조사되었다.

표 7. 취업 후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정도

특 성	구 분	명(%)
취업선호지역	전국	93(23.9)
	대학 소재 지역	16(4.1)
	서울, 경기 지역	186(47.8)
	주소지 인근 지역	92(23.7)
	기타	2(0.5)
희망급여수준	110 ~ 120만원	24(6.2)
	120 ~ 130만원	113(29.0)
	130 ~ 140만원	87(22.4)
	140 ~ 150만원	76(19.5)
	150만원 이상	86(22.1)
	기타	3(0.8)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상사와의 관계	63(16.2)
	전공관련 업무 불안감	106(27.3)
	출신학교 차별 및 갈등	121(31.1)
	자기계발	97(24.9)
	기타	2(0.5)
합 계		389(100)

IV. 고 찰

조사는 광주·전남지역 임상병리과 재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재학 중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고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현 재학생의 학과 인지도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면허취득 후 직장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취업교육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취업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점과

학생들이 학과에서 취업을 위한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매년 임상병리과가 신설되는 대학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권, 1995). 또한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는 학생 중, 평균 2,317명(3~4년 과정 모두 포함)의 학생이 임상병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며, 그 중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학생은 전국평균 61.8%(6년 평균)로 약 1430명의 임상병리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허, 1986). 또한 그해 면허 취득자 중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은 평균 60% 수준에서 매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김, 2000). 인구감소로 인해 점차적으로 임상병리과에 대한 지원학생이 수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취업률의 향상은 임상병리과 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 임상병리과에 대한 지원학생수의 감소현상은 크게 임상병리사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하락이 주된 원인이며, 사회 인지도 하락은 직. 간접적으로 취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상병리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다른 의료기사 직종에 비해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인 학생 지원을 감소는 임상병리과 존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지와 정, 199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이나 학과의 노력으로 학생들의 면허 취득 및 취업률 향상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과 만족도를 높이고, 재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는데 대학별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조사로부터 학생들에게는 임상병리과에 대한 비전과 효율적인 취업인력의 배출을 위한 학생 지도의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 재학생들의 임상병리과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학생지도에 있어 취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나가서는 학생들에게 임상병리사 직종에 보다 밝은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임상병리과는 학생 지도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학생지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재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 정도를 올바르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상병리사로서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임상병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밝은 비전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다양한 선택에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 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과에 대

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협회와 임상, 대학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의료지원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업영역의 발굴과 현장 필요형 전문 인력 양성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1. Crom WR, Taylor RH, Pratt CB. Methotrexate Therapeutic use and serum concentration monitoring. In Taylor WJ and Finn AL (eds). *Individualizing Drug Therapy: Practical Applications of Drug Monitoring*. p149-173, Gross, Townsend, Frank, Inc, New York, 1981
2. Sherson D, Malbaek N, Olsen O, Small opacities among dental laboratory technicians, *Am J Publ Health* 45(5):320-324, 1988.
3. 권용중. 약품 제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01:336-342, 1995.
4. 김용철.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신체자각증상과 직업 관련 건강 위험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0:223-235, 2000.
5. 이무근. 현장실습의 이론 및 전문대학 현장실습 지침서 개발연구. 전문대학 현장실습 지침서 개발연구 위원회. 217:11-13, 1889.
6. 정수경. 21세기에서 임상병리사의 위상과 역할. 보건과학연구논집 5(1):1-14, 1996.
7. 지연상, 정상진. 우리나라 대학병원 의료기사의 업무 실태에 관한 고찰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광주보건대논문집 23(18):315-328, 1998.
8. 지현숙. 임상병리과 의료영역과 임상병리사의 업무. 대한의사협회지 433:165-168, 1996.
9. 황선철. 전문대학 임상병리과 교육연한에 관한 연구. 대한임상병리사회지 18:8-9, 1989.
10. 황선철. 임상병리사 인력수급전망. 한국인구보건연구

회 240:178-182, 1989.

11. 허인남. 한국 임상병리사의 직업의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3:304-356, 1986.